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출수형

(1~3)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대체 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이어지는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쉬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체 휴일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측 :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의 고작 62%에 불과한 우리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연·월차 휴가 일수까지 합치면 연간 휴일 수가 135일에서 145일로 웬만한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휴일은 충분한데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찬성 측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깁니다. 대체 휴일제는 긴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 반대 측은 우리나라 연간 휴일 수가 이미 충분하다, 찬성 측은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을 근거로 대체 휴일제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의견 계속 들어 보겠습니다.

반대 측 :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으로 근로자들을 쉬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체 휴일제까지 도입되면 생산 감소액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32조 4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성 측 : 아까 반대 측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노동 시간은 긴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통한 재충전 효과를 위해 대체 휴일제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 네, 양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만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엔 찬성 측부터 말씀해 주시죠.

찬성 측 :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여가를 더 즐기게 되면 서비스 산업 창출 및 국내 소비 증대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골든 위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죄송합니다만, 일본의 골든 위크가 뭔가요?

찬성 측 : 골든 위크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휴일이 모여 있는 일주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 황금 주간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 측 말씀해 주시죠.

반대 측 : 대체 휴일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아까 찬성 측이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를 언급하셨는데, 주 5일제가 도입될 당시 국내 소비가 증대되고 관광 산업이 부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제도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 실제 크게 활황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라고 주장되는 내용들 역시 이와 비슷한 거라고 ...

찬성 측 :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반대 측의 논리가 딱 그 꼴이네요. 반대 측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은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에 대해 미리부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자 : 잠깐만요, 토론이 과열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발언 순서를 지켜 주시고 특히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토론에서 사회자가 수행한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과 토론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 ②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해 주고 있다.
 - ③ 토론자 발언 내용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 ④ 질문을 통해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토론 규칙을 상기시키며 발언 순서를 지키게 하고 있다.
2. 위 토론에 참여한 이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모두 구체적 수치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상대방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찬성 측은 반대 측과 달리 외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 행동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한 후에, 상대방이 하려는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하여 보여 주고,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네가 혼자서 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아. 네가 며칠 더 고민한다고 해도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넌 아직 인생 경험이 짧기 때문이야.
- ②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정말로 답답할 거야. 그런데 진로 문제라는 게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혼자서 고민했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되었잖니?
- ③ 자신의 문제를 혼자서 힘으로 헤쳐 나가려는 정신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인생은 결국 자신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니?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 ④ 너는 항상 모든 것을 혼자서만 결정하려는 게 문제야. 특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고민을 해도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지역에 있는 진로 지도 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좀 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 ⑤ 나 같아도 진로가 결정이 안 되면 참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가 전문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학교에서 진로 지도를 전담하시는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6~7] 다음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에 대한 논설문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문제점 ... ㉠

I. 서론 ㉡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음용 빈도

II. 본론

1. 문제의 원인 분석

가.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나, 일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고카페인 음료를 '에너지 음료'로 오인

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 미비로 인한 손쉬운 고카페인 음료 구매

라. 국내에 유통 중인 고카페인 음료의 종류 및 가격 파악 ㉢

2. 문제의 해결 방안

가. 카페인에 대한 교육 필요 ㉣

나. 고카페인 음료의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방안 마련 ㉤

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의 보완 필요

III. 결론: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의 개선 촉구

6. 글을 작성하기 전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유형과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바꾼다.
- ② ㉡은 하위 항목의 내용과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 서론: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실태'로 바꾼다.
- ③ ㉢은 상위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II-1-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필요'로 구체화한다.
- ⑤ ㉤은 'II-1-나'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카페인 음료 광고의 청소년 구매 유도 효과 분석'으로 수정한다.

7. (보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개요의 'II-2-다'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자료 1] : 전문가 의견
카페인 일일 섭취 제한 권고량이 성인의 경우 400mg 이지만, 체중 50kg 정도의 청소년인 경우 125mg 으로, 청소년의 경우는 고카페인 음료 1.3캔 정도만으로도 권고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료 2] :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고카페인 음료는 주로 어디서 구매하나요?
1. 일반 편의점 72%
2. 자판기 26%
3. 기타 2%

[자료 3] 국내외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현황

Table with 2 columns: 나라,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방법. Rows include 대한민국, 노르웨이, 호주, 스웨덴, 미국.

- ① 외국처럼 고카페인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청소년들에게 판매 금지하는 것보다는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②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막기 어려우므로 고카페인 음료 자체의 생산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③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는 어른들의 경우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④ 일반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구매를 막을 수 없으므로 청소년 스스로가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의 경우 고카페인 음료 구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의 관리 방법으로는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의 구매를 막을 수 없으므로 판매 장소 및 연령 제한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8. 다음은 기사를 쓰기 위한 구상과 기사의 초고이다. 구상한 내용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구상한 내용)

- 간결한 표제를 통해 기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 부제를 통해 표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전문에서 기사문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해 준다. ㉢
· 본문 첫 문단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제시한다. ㉣
· 본문에서 설문 조사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기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다. ㉤



[초고]

표제: 정부의 아이돌보미 확대로 워킹맘 속앓이
부제: 아이돌보미 시급 5,098원, 2014년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에 지원자 '뚝'
전문: 워킹맘들의 아이돌보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어 아이돌보미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것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일정 정도의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워킹맘들이 아이돌보미를 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는 아이돌보미를 '나쁜 일자리'로 보는 인식 탓에 아이돌보미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 가족부가 지난해 아이돌보미 9,4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임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10%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61.6%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7천~8천 명 더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절한 처우 보장 없이는 아이를 맡기거나 돌보려는 여성 모두에게 외면당할 공산이 크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학교 폭력’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와 같이 썼다.

(나) 학교 게시판에 올린 글

모범생이었던 중학생 K군은 갑자기 우울해지고 성적이 떨어졌으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밀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K군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실상입니다.

학교 폭력이 과거에는 단순히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 폭력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발하게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경향성이 높고 신체 공격성이 강하고 스스로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자녀가 공격 행동을 했을 때 방만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폭력물을 접한 후에 이를 모방하려는 성향이 높을 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조사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의 학생은 학교 폭력을 당한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움을 요청해 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주고자 합니다. 지금 혹시 학교 폭력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스톱불링을 누르세요. 그러면 학교 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9.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보기>의 방법을 고려했다고 할 때,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친구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사례를 서두에 제시해야겠어.㉠
- 학교 폭력이 변화된 과정을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부각해야겠어.㉡
-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야겠어.㉢
-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겠어.㉣
-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 링크를 걸어 주어야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고친다.
- ②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확대되 고’로 수정한다.
- ③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생’으로 고친다.
- ④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 문단의 맨 뒤로 옮긴다.
- ⑤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로 수정한다.

11.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끼리 짝지은 것은?

의문	왜 '단언하건대'의 준말은 '단언컨대'인데,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생각건대'일까?
↓	
자료 조사	<p>한글 맞춤법 제4장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ㄱ'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p> <p>[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p> <p>[보충 설명] [붙임 2]의 경우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을 말하는데,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p>
↓	
문제 탐구	<p>자료를 통해 보면 '단언컨대'는 '단언하건대'의 '하'에서 'ㄱ'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된 경우(제40항)이고, '생각건대'는 '생각하건대'의 '하'가 아주 준 경우(제40항의 [붙임 2])임을 알 수 있다.</p> <p>이렇게 서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유는 [보충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단언하건대'의 경우 어간 끝음절 '하' 앞의 받침이 울림소리인 반면, '생각하건대'의 경우는 안울림소리이기 때문이다.</p>
↓	
적용	따라서 위의 규정을 적용해 본다면, '만만하지'의 준말은 (㉠), '쉽쉽하지'의 준말은 (㉡)임을 알 수 있다.

	㉠	㉡
①	만만치	쉽쉽치
②	만만치	쉽쉽지
③	만만지	쉽쉽치
④	만만지	쉽쉽지
⑤	만만히	쉽쉽지

12. <보기>와 같이 조사를 수정했을 때 생기는 의미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철수가 운동을 잘한다. → 철수가 운동은 잘한다. ㉡ 나는 사과를 먹었다. → 나는 사과만 먹었다. ㉢ 그가 나를 사랑한다. → 그도 나를 사랑한다. ㉣ 너도 나를 배신했다. → 너조차 나를 배신했다. ㉤ 라면을 먹자. → 라면이 나 먹자.

- ① ㉠의 '을'을 '은'으로 바꿈으로써 철수가 다른 건 몰라도 운동만큼은 잘한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② ㉡의 '를'을 '만'으로 바꿈으로써 내가 먹은 과일이 오직 사과뿐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 ③ ㉢의 '가'를 '도'로 바꿈으로써 그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 ④ ㉣의 '도'를 '조차'로 바꿈으로써 너의 배신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음을 더해서 표현할 수 있다.
- ⑤ ㉤의 '을'을 '이'로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라면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임을 표현할 수 있다.

1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표준 발음법 제4장

제9항 받침 ‘ㄱ, ㅋ, ㆁ, ㅈ, ㅊ, ㅌ, ㄷ’,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ㅌ’,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ㅃ’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고, ‘ㄸ’은 ‘ㄸ죽하다, ㄸ둥글다’와 같은 경우에 [ㄸ]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어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보기 2 >

㉠ 내가 읽고 있는 시는 어제 내가 읽은 시다.

㉡ 책을 읽고 난 뒤 네 표정이 밝지 않구나.

㉢ 앞쪽 책상에 무릎을 부딪쳤다.

㉣ 드넓은 우리 국토를 밟지 않을 수 없다.

㉤ 짐은 밟칸에 엎고 어서 자리에 앉아라.

- ① ㉠에서 ‘읽’은 [읍]으로, ‘읽은’은 [읍픈]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② ㉡의 ‘읽’은 [일]로, ‘밟’은 [발]로 발음해야 한다.
- ③ ㉢의 ‘앞쪽’은 [압쪽]으로, ‘무릎을’은 [무르플]로 발음해야 한다.
- ④ ㉣의 ‘드넓은’은 [드넵븐]으로, ‘밟’은 [ㅃ:]으로 발음해야 한다.
- ⑤ ㉤의 ‘엎’은 [언]으로, ‘앉아라’는 [안자라]로 발음해야 한다.

14. 다음은 ‘걸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걸다¹ 「형용사」

㉠ 액체 따위가 내용물이 많고 진하다.

㉡ 국물이 걸다/풀을 너무 걸게 쭈어서 풀질하기가 어렵다.

㉢ 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

㉣ 술상이 걸다/이 식당은 반찬이 걸게 나온다.

걸다² 「동사」

[... 에 ... 을]

㉤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정문에 자물쇠를 걸다/방문에 문고리를 걸다.

㉦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 전축에 음반을 걸다/원고를 윤전기에 걸다.

- ① ‘걸다¹’과 ‘걸다²’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로 보아 동음이의어겠군.
- ② ‘걸다¹’ ㉦의 용례로 ‘잔치가 걸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걸다²’ ㉤ 뜻의 반의어로는 ‘풀다’가 가능하겠군.
- ④ ‘걸다²’ ㉦으로 보아 ‘베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삼베를 준비하여 놓다.’의 의미로 ‘베틀에 삼베를 걸다’를 쓸 수 있겠군.
- ⑤ ‘걸다²’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겠군.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와 말하는 대상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 그래서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높여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부모에게 “댁의 아드님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화자	청자	표현
①	누나	동생	할머니께서 오늘 집으로 오신다고 하네.
②	장인	사위	김 서방이 내 딸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나?
③	상사	부하	자네가 회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다녀오면 언제?
④	아버지	딸	시골에 계신 네 막냇삼촌을 찾아뵙 거라.
⑤	가게 주인	손님	딸이로 싸게 팔 테니 사 가세요.

16.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참의고경명은광주사람이니 임진왜란의병을슈창호야금산
 도적글티다가 패하여아들인후와막하사람뉴평노안영으로
 가지로죽다당중휘원슈갑포려군을닐와다진귀가죽다
 -1617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현대어 풀이)

참의 고경명은 광주 사람이니 임진왜란에 의병을 앞장
 서 일으켜서 금산의 도적을 치다가 패하여 아들 인후와
 막하 사람 유평로, 안영과 함께 죽었다. 장자인 중후가 원
 수를 갚으려 군을 일으켜 (싸우다) 진주에 가서 죽었다.

- ① ‘사람이니’에서는 끊어 적기가, ‘도적글’에서는 거듭 적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티다가’를 통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뉴노’, ‘닐와다’를 통해 ‘ㄸ’나 ‘ㄹ’ 앞에서 ‘ㄴ’이 탈락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안영으로’에서는 ‘으로’가 현대 국어의 공동 부사격 조사 ‘와/과’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중휘’에서는 ‘ㅣ’가 앞 체언의 끝모음과 축약된 형태로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회화나 조각과 같은 공간 예술과는 달리,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작곡가들은 그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다. 즉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반복의 양상과 효과는 <비행기>와 같은 동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노래를 하나로 묶어 주고 있다.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방’을 선택했다. 이때 ㉠ 모방은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된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 간다. 이로써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성부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을 느끼게 해 주는 짜임새가 만들어졌다.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 성악 음악을 구현하는 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이제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음 성부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가 나타난다. 이로써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운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고전 시대에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이 시대에 널리 쓰인 소나타는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는데,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악장의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는 론도 형식이 적합하다.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각 시대의 작곡가는 입체적인 모방, 장식적인 변주, 형식적인 반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구현된 악곡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음악은 시대마다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7.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반복은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 ② 선율의 반복은 노래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 ③ 돌림 노래는 무반주 성악곡에서 변주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 ④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화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 ⑤ 반복 기법은 단순한 노래부터 복잡한 악곡까지 널리 사용된다.

18. ㉠의 방법에 따라 <보기>를 사용하여 3성부의 악곡을 만들 때, 도입부의 짜임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① 성부1 A B | 성부2 A D | 성부3 A C |
- ② 성부1 A B | 성부2 A C | 성부3 A D |
- ③ 성부1 A B | 성부2 C D | 성부3 B A |
- ④ 성부1 C D | 성부2 D A | 성부3 A B |
- ⑤ 성부1 C D | 성부2 A B | 성부3 B C |

19. 위 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美)를 보여 준다. 1:1.618의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도 아름다운데, 이 비율로 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면 동일과 변화라는 또 다른 미감이 생긴다. 이런 반복과 변화의 미는, 르네상스의 건축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건축물에서 문과 창은 같은 형태에서는 반복의 미를, 다른 크기에서는 색다른 변화의 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이런 건축물을 세련되게 작곡된 음악에 비유해 '조화'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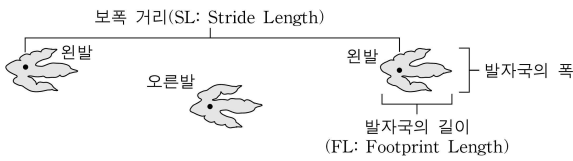
- ① 반복의 미적 쾌감은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양식이나 자연물에서도 느낄 수 있겠군.
- ②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③ 장식적 변주는, 크기를 달리하며 변화되는 문과 창에서 느껴지는 색다른 미감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④ 바로크 성악 음악에서 화성 반주의 저음 성부는 앵무조개 껍데기 무늬에서 느껴지는 미와 통하겠군.
- ⑤ '조화'라 불리는 건축물에서 통일성과 변화가 공존하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군.

20. ㉡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중 ㉡의 효과와 유사한 것은?

- ①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걸음 치마폭이 너풀거린다.
- ②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대강 급한 일부터 끝내자.
- ③ 가뭄으로 논밭이 바싹바싹 타들어 간다.
- ④ 노랫소리가 멀리멀리 울려 퍼진다.
- ⑤ 곳간을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웠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1만 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룡 발자국 연구에서는 발자국의 형태를 관찰하고, 발자국의 길이와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을 알아낸다.



우선 공룡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공룡의 종류를 알아낸다.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공룡인 용각류와 조각류, 육식 공룡인 수각류의 것으로 대별된다. 용각류의 발자국은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우며 앞발이 뒷발보다 작고 그 모양도 조금 다르다. 이들은 대체로 4족 보행렬을 나타낸다. 조각류의 발자국은 세 개의 뾰족한 발가락이 앞으로 향해 있고 발뒤꿈치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이들은 대개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보인다. 수각류의 발자국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세 개의 발가락과 좁고 뾰족한 발뒤꿈치를 보인다. 조각류처럼 2족 보행렬을 나타내지만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의 폭보다 더 길다는 점이 조각류와 다르다.

다음으로 공룡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공룡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발자국의 길이(FL)'에 4를 곱해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h)'를 구하여 $h = 4FL$,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4족 보행 공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뒷발자국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단, h와 FL의 비율은 공룡의 성장 단계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보폭 거리(SL)'는 보행 상태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SL은 공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SL을 h로 나눈 '상대적 보폭 거리 $[SL/h]$ '를 사용한다. 학자들은 SL/h 의 값이 2.0 미만이면 보통 걸음, 2.0 이상 2.9 이하이면 빠른 걸음이었을 것으로, 2.9를 초과하면 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외에도 공룡의 뼈나 이빨, 다른 동식물의 화석 등도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는 물결 자국이나 건열* 등의 퇴적 구조를 분석하여 발자국이 만들어진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 건열: 건조한 대기로 인해 땅 표면이 말라서 갈라진 것.

21.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 한반도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중심으로
- ② 공룡 화석과 중생대 백악기의 기후 환경
 - 공룡의 분포와 서식지 특성을 중심으로
- ③ 한반도 공룡 발자국 화석의 세계
 -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④ 한반도 서식 공룡의 다양성
 -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의 공존을 중심으로
- ⑤ 공룡 화석 연구의 가치
 - 공룡 골격 화석의 학술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보기>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조사 결과]

- ㉠. 발자국 길이 - A: 평균 25cm, D: 평균 25cm
- ㉡. 뒷발자국 길이 - B: 평균 30cm, C: 평균 36cm
- ㉢. 보폭 거리 - A: 평균 230cm, D: 평균 150cm
- ㉣. 발자국 모양 - A와 D 모두 발톱 자국이 보이며,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깊.
- ㉤.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 건열, 새의 발자국이 발견됨.

22. 위 글을 읽고 <보기>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C를 남긴 공룡은 모두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
- ②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을 것이다.
- ③ 중생대 백악기에는 공룡과 새가 함께 서식했을 것이다.
- ④ B를 남긴 공룡은 C를 남긴 공룡보다 'h'가 작았을 것이다.
- ⑤ B를 남긴 공룡은 4족 보행, D를 남긴 공룡은 2족 보행을 했을 것이다.

23. '상대적 보폭 거리'를 이용하여 A와 D로부터 공룡의 보행 상태를 바르게 추정된 것은?

- | | | | |
|---------|-------|---------|-------|
| A | D | A | D |
| ① 보통 걸음 | 보통 걸음 | ② 빠른 걸음 | 보통 걸음 |
| ③ 빠른 걸음 | 빠른 걸음 | ④ 달림 | 보통 걸음 |
| ⑤ 달림 | 빠른 걸음 | | |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2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 ②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③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26.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았다.

(가) 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나)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 ① 좋은 씨앗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② 우리 집과 철수네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 ③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④ 다른 모든 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동영상은 연속적인 화면의 모음인데, 화면 간 중복은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동영상을 생각해 보자. 현재 화면을 이전 화면과 비교하면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화면을 모두 저장하지 않고 변화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만 저장하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 다음,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들만을 저장한다. 이때 압축 전

[A] 후의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아서, 제거 가능한 성분들이 많아진다. 다만 이들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지는 등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유에서 ㉡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크게 줄어들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되는 것과 비슷하다.

압축된 동영상에 저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는 위의 과정을 거쳐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이다. 통계적 중복은 이들 데이터에서 몇몇 특정한 값이 나오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이때 자주 나오는 값일수록 더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데이터 값을 그대로 저장할 때보다 저장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7.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면이 복잡한 경우에는 화면 간 중복을 제거할 수 없겠어.
- ② 화면이 흐려지는 이유는 화소의 개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어.
- ③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는 화소 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겠어.
- ④ 맨 첫 화면에서는 이전 화면이 없어 화소 간 중복을 제거할 수 없겠어.
- ⑤ 변환된 성분을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압축된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지겠어.

28. ㉠에 대응하는 것을 [A]의 동영상 압축 과정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나의 화면 ② 동영상의 화질
- ③ 원래의 화소 값들 ④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
- ⑤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전 화면	현재 화면
(가)		
(나)		

※ (가), (나)는 흑백 화면이며 화소의 개수가 모두 동일함.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 사이의 화면 간 중복 정도	현재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
①	(가)가 더 높다	(가)가 더 높다
②	(가)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
③	(나)가 더 높다	(가)가 더 높다
④	(나)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
⑤	(가)와 (나)가 같다	(가)와 (나)가 같다

30.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돌을 던지자 고요한 호수에 파문이 일었다.
- ② 눈 내린 마당에 강아지 발자국이 나 있다.
- ③ 주머니에 구멍이 생겨 동전을 잃어버렸다.
- ④ 새로 산 차에 흡이 가선 속상하다.
- ⑤ 그는 나이가 차 장가를 들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십육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삼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덕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 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주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공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은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승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온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엮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 초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뇨?”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게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 옛날 환(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온지라. 도로 돌아감만 감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鴈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건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 환우성: 벼를 부르는 소리.
- *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31.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박 처사'가 혼인을 청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 ②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 ④ '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 ⑤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진한 검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 ③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 ⑤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34.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1점]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

[A]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①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

[B]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폼다. ①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

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날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꼭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건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②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③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육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잠담 시간도 지나고 ④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⑤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⑥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⑦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⑧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⑨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욱, 「역사(力士)」 -

35.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 ④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씨'가 보여 준 모습은 '나'에게 경이로운 것이었다.
- ② ㉡: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다.
- ③ ㉢: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 ④ ㉣: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 ⑤ ㉣: '나'의 행동이 이 집안의 규칙에 의해 제약되기 시작했다.

37. ㉠~㉣ 중 문맥상 함축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게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둘러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견잡**할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막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은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3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다그러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예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4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경에 못 든 잠을 자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흠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뜩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붙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님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A]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42.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입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입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집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집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긋 웃고) ……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애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둘러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① 짹짹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던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②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온다. ③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④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⑤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뻘컘하게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흥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4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 ②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불이는 영호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호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 ⑤ 영희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44.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촬영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 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 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 ②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 ③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 ④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가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 ⑤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철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4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2,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국어 영역(출수형) 해설

[정답]

- 1. ③ 2.④ 3.② 4.④ 5.⑤ 6.⑤ 7.⑤ 8.④ 9.② 10.①
- 11.② 12.⑤ 13.② 14.② 15.④ 16.⑤ 17.③ 18.① 19.② 20.①
- 21.① 22.① 23.② 24.④ 25.⑤ 26.④ 27.⑤ 28.⑤ 29.③ 30.⑤
- 31.② 32.⑤ 33.① 34.④ 35.③ 36.② 37.② 38.③ 39.③ 40.②
- 41.④ 42.④ 43.① 44.② 45.③

1.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일관성 여부 평가

사회자는 세 번째 발언에서 각자의 입장에 충실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토론자 발언 내용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용어의 개념과 토론 배경 언급

사회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대체 휴일제의 개념과 토론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② 확인: 발언 내용 요약·정리

사회자는 두 번째 발언에서 양측의 발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해 주고 있다.

④ 확인: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 요구

사회자는 네 번째 발언에서 질문을 통해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⑤ 확인: 토론 규칙을 상기시키며 발언 순서를 지키게 함

사회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발언 순서를 지켜 달라는 점과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달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2.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상대 발언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 주장 펼치기

찬성 측의 두 번째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동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반대 측의 발언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 반대 측의 세 번째 발언 내용을 보면, 찬성 측이 앞서 주장한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주 5일제의 파급 효과와 유사한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구체적 수치 활용 여부

찬성 측은 첫 번째 발언에서, 반대 측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언에서 구체적 수치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확인: 상대의 발언 경청 여부

찬성 측은 마지막 발언에서 반대 측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있다.

③ 확인: 외국의 성공 사례

찬성 측은 세 번째 발언에서 일본의 골든 위크 사례를 근거로 들며 대체 휴일제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확인: 논의 대상과 기대 효과가 유사한 사례

반대 측은 마지막 발언에서 찬성 측이 주장하는 대체 휴일제의 파급 효과가 이전에 시행된 주 5일제의 파급 효과처럼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상대의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3. 추가 자료의 활용 방안 추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1: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대체 휴일제 필요

(보기 1)의 (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국내 소비 감소 추세로 인해 촉발된 것이므로, 기업의 생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내 소비를 활성화해야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찬성 측의 세 번째 발언을 보면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여가를 더 즐기게 되면 서비스 산업 창출 및 국내 소비 증대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은 (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확인 2: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대체 휴일제 필요

(보기 1)의 (나)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월차 유급 휴가 사용률이 40%대에 불과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 부담, 직장의 관행, 대체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연·월차 휴가 사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월차 휴가 제도가 제대로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대체 휴일제가 필요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은 (나)를 적절히 활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확인: 휴일 증가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

(보기 1)의 (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기업의 생산력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국내 소비 감소 추세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 했다. 따라서 대체 휴일제 시행이 가져올 소비 활성화 효과보다 기업의 생산력 손실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은 (가)를 적절히 활용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확인: 연·월차 휴가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음

(보기 1)의 (나)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연·월차 휴가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은 연·월차 휴가 제도가 이미 잘 활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굳이 대체 휴일제까지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은 (나)를 적절히 활용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

4.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란 대화 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은 대화 참여자가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

의 현재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다른 대화 참여자도 이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 간에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비언어적 표현
표정이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이 고민거리가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

② 확인: 상대방의 발언을 유도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고민을 말해 보라고 유도하고 있다.

③ 확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
상대방이 진로에 대한 화제를 제시하자,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이 몇 달 전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⑤ 확인: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
대화 참여자는 '많이 답답한 모양이구나.'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한 후에, 상대방과 같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이어질 내용 생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진로 지도를 전담하시는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나 같아도 진로가 결정이 안 되면 참 힘들었을 거야.'라고 하여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가 전문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라고 하여 상대방이 혼자서 진로를 결정하려는 것의 결과를 예상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러니 학교에서 진로 지도를 전담하시는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네가 혼자서 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아.
'네가 며칠 더 고민한다고 해도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어.'라고 하여 결과의 예상만 제시하고 있다.

② 확인: 지금까지 네가 혼자서 고민했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되었잖니?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정말로 답답할 거야.'라고 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그런데 진로 문제라는 게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여 결과의 예상만 제시하고 있다.

③ 확인: 인생은 결국 자신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니?
'자신의 문제를 혼자서 힘으로 헤쳐 나가려는 정신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라고 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라고 하여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

④ 확인: 너는 항상 모든 것을 혼자서만 결정하려는 게 문제야.
'특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고민을 해도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하여 결과의 예상되는 점과, '우리 지역에 있는 진로

지도 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좀 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라고 하여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

6. 내용 조직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원인과 해결 방안의 관계 고려
'II-1-나'에서 문제의 원인으로 '일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고카페인 음료를 '에너지 음료'로 오인'하는 것을 지적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런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은 적절하다. 고카페인 음료 광고가 청소년 구매 유도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므로 ⑤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글의 유형과 내용 고려
본설문이라는 글의 유형과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실태와 그것의 원인, 해결 방안, 문제의 개선 촉구를 주장하는 글의 내용 흐름을 고려할 때, ㉠의 주제를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확인: 하위 항목과 결론의 제시 방법
서론의 하위 항목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음용 빈도'이고, 결론은 'III. 결론: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의 개선 촉구'와 같이 하위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하위 항목의 내용과 결론 제시 방법을 고려해 ㉠을 'I. 서론: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실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확인: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관계 고려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 섭취하는 문제의 원인이 제시되어야 할 항목에 '국내에 유통 중인 고카페인 음료의 종류 및 가격 파악'이라는 ㉡의 내용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확인: 원인과 해결 방안의 관계 고려
㉠은 카페인에 대해 무엇을 교육한다는 것인지 막연하기도 하고 'II-1-가'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을 'II-1-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필요'로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국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의 보완 방안
'II-2-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므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의 보완 필요'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자료를 모두 활용해야 하므로 '자료 1'을 통해 청소년의 경우 어른보다 고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자료 2'와 '자료 3'을 통해 학생들의 고카페인 음료 구매 경로를 참고했을 때 현재 학교 매점에서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카페인 음료 관리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외국의 경우처럼 판매 금지나 제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활용한 ⑤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자판기에서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자료 2'의 내용을 보면, 자판기보다도 일반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확인: 고카페인 음료 생산 제한
(보기)의 자료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고카페인 음료 판매 관리 정책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 자체의 생산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더구나 '자료 2'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③ 확인: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 홍보
'자료 1'을 활용하여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 문제가 어른들의 경우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은 좋지만, '자료 2'와 '자료 3'의 내용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으며 'II-2-다'의 내용으로도 볼 수 없다.

④ 확인: 고카페인 음료 섭취 자제 노력
일반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구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료 2'를 활용한 판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자제하려는 청소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II-2-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자료 1'과 '자료 3'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 제시
본문 첫 문단에서는 아이돌붐 서비스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기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표제
표제의 내용에서 정부가 아이돌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워킹맘들이 아이돌붐을 구하기 어렵다는 주요 내용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② 확인: 표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부제
부제에 아이돌붐 시급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표제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확인: 기사문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전문
전문에서 정부가 아이돌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워킹맘들이 아이돌붐을 구하기 어렵다는 본문의 주요 내용이 요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⑤ 확인: 설문 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기사 내용의 신뢰도를 높임
본문에서 여성 가족부가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사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9. 글쓰기 전략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공간적인 순서
2문단에서 '학교 폭력이 과거에는 단순히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만을 의미했습니다.'와 '현재는'이라고 하여 학교 폭력이 과거에 비해 심각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 폭력의 변화이지 공간의 순서에 따른 변화는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사례를 서두에 제시
1문단의 '모범생이었던 중학생 K군은 갑자기 우울해지고 성적이 떨어졌으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밀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 가해자가 되는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
3문단의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 자료의 출처를 밝혀
4문단의 '2012년에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조사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 매체 특성을 고려
5문단의 '지금 혹시 학교 폭력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스톱불링을 누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문장의 접속 관계
현재의 학교 폭력이 과거에 비해 심각해지고 있다는 내용으므로 '그뿐만 아니라'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를 '그렇다면'으로 고쳐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피동 표현
'확대되어지고'는 피동이 중복 사용된 것이므로 '확대되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확인: 단어의 쓰임
'발발'은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남'이라는 의미로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을 의미하는 '발생'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확인: 글의 흐름
3문단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고 두 가지를 설명했으므로 나머지 한 가지 요인인 ㉔을 3문단의 맨 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⑤ 확인: 호응 관계
'같았습니다'는 '그 이유는'와 호응되지 않으므로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 만만치, ㉡ 섭섭지
[보충 설명]을 통해 어간 끝음절 '하' 앞의 받침이 울림소리인 경

우는 제40항 본항, 안울림소리인 경우는 제40항 [붙임 2]의 적용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만만하지’의 경우 ‘하’ 앞의 받침은 ‘ㄴ’이고 이는 울림소리이므로 ‘만만하지’의 준말은 제40항 본항에 따라 ‘만만치’임을 알 수 있다. ‘شطشط하지’의 경우 ‘하’ 앞의 받침은 ‘ㄴ’이고 이는 안울림소리이므로 ‘شطشط하지’의 준말은 [붙임 2]에 따라 ‘شطشط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어간 끝음절 ‘하’ 앞이 모음인 경우에도 제40항 본항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연구하도록’의 준말은 ‘연구토록’이다.

12. 조사의 올바른 쓰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보조사 ‘이나’의 의미

(e)에 쓰인 보조사 ‘이나’는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을 표현할 때 쓰는 보조사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보조사 ‘은’의 의미

보조사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적절하다.

② 확인: 보조사 ‘만’의 의미

보조사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적절하다.

③ 확인: 보조사 ‘도’의 의미

보조사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한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④ 확인: 보조사 ‘도’와 조차’의 의미

보조사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조차’는 여기에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뜻을 나타낼 때 쓴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배신했다.’를 ‘너조차 나를 배신했다.’라고 바꿔 표현하면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던 너까지 나를 배신했다는 뜻을 더할 수 있다.

13. 표준 발음법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겹받침 ‘리’의 발음

제11항에 따르면 겹받침 ‘리’은 자음 앞에서는 [ㄹ]으로, 용언의 어간 말음일 때는 ‘ㄹ’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읽고’에서 ‘읽’은 [일]로, ‘밟지’에서 ‘밟’은 [박]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겹받침 ‘ㄹ’의 발음

‘읽고’의 경우 ‘ㄹ’ 뒤에 자음이 이어지므로 제11항에 따라 ‘읽’은 [일]으로, ‘읽은’의 경우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이어지므로 제13항에 따라 [일픈]으로 발음해야 한다.

③ 확인: 받침 ‘ㅍ’의 발음

‘앞쪽’의 경우 ‘ㅍ’ 뒤에 자음이 이어지므로 제9항에 따라 [압쪽]으로, ‘무릎을’의 경우 ‘ㅍ’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이어지므로 제13항에 따라 [무르플]로 발음해야 한다.

④ 확인: 겹받침 ‘ㄹ’의 발음

‘드넓은’의 경우 ‘ㄹ’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이어지므로

제13항에 따라 [드널븐]으로, ‘밟지’의 경우 ‘ㄹ’ 뒤에 자음이 이어지므로 제10항에 따라 ‘밟’은 [팍:]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확인: 겹받침 ‘ㅅ’의 발음

‘없고’의 경우 ‘ㅅ’ 뒤에 자음이 이어지므로 제10항에 따라 ‘없’은 [언]으로, ‘앉아라’의 경우 ‘ㅅ’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이어지므로 제13항에 따라 [안자라]로 발음해야 한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확인: 용례

‘잔치가 걸다’라는 것은 잔치에 음식의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다는 의미이므로, ‘걸다’ ㉠의 용례로는 적절하지 않고 ‘걸다’ ㉡의 용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동음이의어

발음은 같지만 별개의 표제어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동음이의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③ 확인: 반의어

‘풀다’는 ‘뭉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걸다’의 반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④ 확인: 문장의 의미

베틀은 삼베, 무명, 명주 따위의 피륙을 짜는 틀로, ‘베틀에 삼베를 걸다’에는 ‘베틀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삼베를 준비하여 놓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⑤ 확인: 문장 성분

‘... 에 ... 을’로 보아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높임 표현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막냇삼촌

화자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냇삼촌’이 동생이기 때문에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다. 그런데 청자인 ‘딸’ 입장에서는 ‘막냇삼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즉 청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찾아뵙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대상을 높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할머니

화자인 ‘누나’의 입장에서 ‘할머니’는 당연히 높여야 하는 대상이다.

② 확인: 대상의 확인

말하는 대상인 ‘딸’을 높이지 않았다.

③ 확인: 회장

화자인 ‘상사’ 입장에서는 ‘회장’이 당연히 높여야 하는 대상이다.

⑤ 확인: 대상의 확인

말하는 대상이 제시되지 않았다.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관형격 조사

‘종휘’는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면 ‘종후가’로 풀이된다. 따라서 ‘종휘’는 ‘종후’에 주격 조사 ‘쪽’가 붙어 축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확인: 끊어 적기, 거듭 적기

‘사름이니’는 ‘사르미니’와 같이 음절 끝 자음을 다음 모음으로 이어 적지 않고 끊어 적고 있으므로 끊어 적기로 쓴 표기이다. 또 ‘도적 글’의 경우 ‘ㄱ’을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또 뒤 음절의 초성으로 도 적는 거듭 적기가 나타나 있다.

② 확인: 구개음화

‘티다가’를 보면 ‘쪽’ 앞에서 ‘ㄷ’이 ‘ㅌ’으로 구개음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두음 법칙

‘뉴평노’, ‘닐와다’를 보면 ‘ㄷ’나 ‘쪽’ 모음 앞의 ‘ㄴ’이 탈락되지 않았으므로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부사격 조사

‘안영으로는’ ‘안영과’로 풀이되어 있다. 즉 ‘으로’가 지금의 공동 부사격 조사 ‘와/과’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19] 예술,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의 양상’

지문 해설: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의 양상을 시대별로 소개한 글로 음악은 시대별로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작곡가들은 (감상자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음이 기억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반복의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돌림 노래와 유사한 입체적인 모방의 방식으로, 바로크 시대는 반복과 변주를 통한 장식적인 변주 형태로, 고전 시대는 주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악장의 사이사이에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를 삽입하는 형식적 반복의 형태로 반복의 기법을 구현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시대별 음악 양식에 적용된 반복 기법의 특징

1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해설 : 둘째 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한 ‘모방’을 통해 반복 기법을 활용했다. 변주의 방식을 활용한 것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은 다섯째 문단, ②는 첫째 문단, ④는 셋째 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⑤ 첫째 문단과 넷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반복 기법이 단순한 동요에서부터 복잡한 소나타까지 널리 사용된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의 적용)

정답 해설 : ‘모방’의 방식은 돌림 노래 형식으로 여러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을 노래하는 반복 기법을 말한다. 돌림 노래처럼 동일한 선율로 시작한 후에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의 노래를 이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에 의한 통일감과 다른 선율에 의한 독립성을 보여주는 구조가 ‘모방’의 양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①은 A가 시간 차를 두고 반복되면서 각 성부가 A의 뒤에 각각 B,

C, D와 같은 독립된 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방’의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성부의 A 뒤에 각각 독립적인 B, C, D가 이어지고 있어 성부의 독립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A가 시간 차를 두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 성부가 동시에 A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성부2에서 A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성부1과 성부3의 독립성이 떨어진다. ④ 성부1에서 A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성부1, 3에서 A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정답 해설 : <보기>는 앵무조개의 껍데기가 동일과 변화의 미감을 준다는 내용으로 동일한 형태의 반복에서 동일을, 형태의 크기를 달리하는 것에서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 양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②에서 언급한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서로 다른 주제가 대조되는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황금 비율로 된 빈 줄이에서 느껴지는 동일과 변화의 아름다움과는 다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반복의 미감은 <보기>에서 언급되었듯이 르네상스 건축에서도 느낄 수 있다. ③ 동일과 변화의 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문과 창은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추구한 바로크 시대의 장식적 변주 양식과 유사하다. ④ 바로크 성악의 저음 성부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에서도 엿볼 수 있다. ⑤ 동일과 변화를 통한 조화를 추구했던 바로크 시대의 음악 양식과 르네상스 건축의 유사성을 잘 이해한 반응이다.

20.. 추론적 사고(어휘의 이해와 활용)

정답 해설 : ‘사이사이’는 ‘사이’라는 어휘가 반복되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또는 틈이 있는 데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걸음걸음’은 ‘걸음’을 반복함으로써 ‘걸음을 걸을 적마다, 걸음마다’라는 의미를 얻게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사이사이’에 담긴 ‘여러 개의 사이’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될 수 있듯이 ‘걸음걸음’도 ‘여러 걸음들’이라는 복수적 의미로 표현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나머지는 ‘-마다’와 결합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대강들’(×), ‘파작들’(×), ‘멀리들’(×), ‘가득들’(×)처럼 복수적 의미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21-23] 과학,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지문해설 : 공룡 발자국 화석이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공룡 발자국의 형태, 길이,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형태를 토대로 발자국의 주인이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 공룡인지 짐작할 수 있으며, 발자국의 길이를 통해 공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보폭

거리를 통해서 발자국의 주인이 어떻게 보행하는 공룡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주제]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21.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공룡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종류를,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크기를, 보폭 거리로부터 보행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토대로 공룡의 특성이나 당대의 기후, 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공룡 발자국에 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생대 백악기의 기후 환경, 공룡의 분포, 서식지 특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은 글의 내용과 상관성이 적은 부제이다. ④ 공룡 발자국 형태를 통해 발자국 주인이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 나와 있을 뿐이다. 글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 ⑤ 공룡 골격 화석이 아니라 발자국 화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B는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부터 B가 초식 동물인 용각류에 속하는 공룡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A를 보면 앞쪽에 세 개의 발가락이 있으며 뒤꿈치는 뾰족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각류의 발자국 형태이다. 수각류는 육식 공룡이다. 따라서 A와 C의 공룡이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림 자료 왼쪽에 건열이 있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③ <보기> 자료에서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과 함께 새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있다. ④ 4족 보행 공룡의 경우에 뒷발자국의 길이를 기준으로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h)'를 구한다. 뒷발자국 길이가 B는 평균 30cm이고, C는 평균 36cm이므로 B는 h값이 120이고 C는 144이다. ⑤ B에는 모양이 서로 다른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함께 있으므로 B의 주인은 4족 보행 공룡이다. 그러나 D는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보이고 있으므로 발자국 주인이 2족 보행 공룡이다.

2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상대적 보폭 거리는 [SL/h]이다. A와 D는 발자국 길이가 같으므로 h 값도 100으로 동일하다. 반면에 A의 보폭 거리(SL)는 230cm이고 D의 보폭 거리는 150cm이므로 A와 D의 상대적 보폭 거리는 각각 2.3과 1.5이다. A는 2.0 이상 2.9 이하에 해당하므로 보행 상태가 빠른 걸음 상태였을 것이고, B는 2.0 미만이므로 보통 걸음 상태였을 것이다. [답] ②

[24-26] 인문, '집단 수준의 인과'

지문해설 : '집단 수준의 인과'라는 철학적 주제에 대하여 상이한 관

점을 보이는 두 주장을 대비한 글이다. 상이한 두 관점은 각각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는 별개다'라는 입장과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입장이다. 전자는 집단 수준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스트레스와 병이라는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제시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글쓴이 자신의 주관은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글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주제]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에 대한 관점의 대비

24. 사실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는 별개라고 보는 관점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 둘을 대비하면서 스트레스와 병을 예로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상반된 두 관점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서 그칠 뿐, 내용을 종합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②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자를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두 관점에서 각각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⑤ 서두에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하고, 철학자들은 그 점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설명한 글로, 상식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2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집단 수준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독립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쪽에서도 하나의 결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여러 요인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어느 요인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추리할 수는 없다. ② 사람들은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했다.(첫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③ 첫째 단락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와는 반대로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하여 집단 수준의 인과를 도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집단 수준의 인과와는 별개라고 보는 쪽의 견해와는 맞지 않은 말이다.

26. 추론적 사고(생략된 전제의 추리)

정답해설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요인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필수적인 요인이 있다면 집단 수준의 인과가 갖는 필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기>의 (가)에 제시된 여러 요인들 중에는 필수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다. (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려면 다른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전제로 하면 되는데, <보기>의 (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에 바로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된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좋은 씨앗이 아닌데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나)의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 ② 물을 제때 주지 않은 것이나 병충해로 인한 요인은 개별자 수준 인과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집단 수준 인과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결론과는 무관한 것이기도 하다. ③ (가)에 제시된 영희네의 사례는 경험적인 것이므로 이 말 자체가 이미 틀렸다. 게다가 (나)의 결론과 상충되기도 한다. ⑤ 병충해 방제와 적절한 물 공급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에 들어가면 결론에 맞지도 않는다.

[27-30] 기술, '동영상 압축 기술의 원리'

지문해설 : 컴퓨터 동영상 파일은 대부분 수십만 장의 화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압축한 결과물이다. 이 글에서는 화질의 차이 없이 동영상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제거하는 것이 그것인데, 본문의 문단 구조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이다.

[주제] 컴퓨터 동영상 압축 기술의 세 가지 원리

27. 비판적 사고(독자들의 반응)

정답해설 : 본문의 정보를 바르게 이해한 반응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먼저, 셋째 문단의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이라는 대목에서 '변환된 성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문단의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을 저장한다',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등에서 '변환된 성분'의 제거 정도에 따라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넷째 문단의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통계적 중복' 원리가 '변환된 성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 크게 줄일 수 있다.'에서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압축된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달라지겠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⑤의 '변환된 성분'과 관련이 깊은 것은 둘째와 셋째의 원리이며, 이들 각각에서는 변환이 이루어진 성분을 제거하는 정도에 따라 동영상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화면 간 중복'은 이전 화면과 이후 화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며, '화면이 복잡한' 경우는 화면 내부의 정보를 따지는 '화소 간 중복'과 관계된다. ② 셋째 문단에 따르면,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면이 흐려지는' 이유는 화소의 개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③ 화면 간 중복은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하다는 내용을 둘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화면이 연속된다면 화면 간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여도 같은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 화소 간 중복만 제거할 수 있다고 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셋째 문단에 따르면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소의 중복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화면과의 관계를 알 수 없어 화소

간 중복을 따질 수 없다고 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화면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중복은 '화면 간 중복'이다.

28. 추론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정답해설 : ㉠이 지닌 비유적 의미를 파악하고, ㉠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추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이다. ㉠(수분)은 우유에서 전지방유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며, 전지방유는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유'를 '원래의 정보'라고 한다면, '수분'은 '필수적이지 않은, 없어도 되는 정보', '전지방유'는 '압축된 정보'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분'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⑤의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 즉 필수적이지 않아서 제거해도 되는 정보로 볼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하나의 화면'은 변환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모든 화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분'의 비유적 의미와 거리가 있다. ② '동영상의 화질'은 그 화면에 제거해도 되는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었느냐에 따라, '우유의 수분 함유량'으로 비유될 수 있다. ③ '원래의 화소 값들'은 원래의 우유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으로 비유될 수 있다. ④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는 우유로 치면, 수분을 제거하기 이전과 이후의 각각의 우유 성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9.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이전 화면'에 별, 사각형, 원, 육각형, 팔각형이 들어 있고, '현재 화면'에 같은 도형들이 들어 있는데, 다만 그 배치가 달라져 있다. 형태가 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셋째 문단에서 말하는 '한 화면 안에서 화소 값의 차이'는 적은 편이다.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 '선'을 제외하면 변화도 거의 없다. 반면 <보기>의 (나)는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다만 같은 화면 내에서 세부적인 명암의 차이가 크므로 '한 화면 안에서 화소 값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면 간 중복의 정도'는 두 개의 화면이 거의 비슷한 (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는 (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30. 어휘·어법(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의 '지는'은 '얼룩'과 결합하여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를 의미하며, '생기다'와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⑤의 '장가를 들었다'의 '들다'는 '~(생활)을 시작하다', '~의 처지에 놓이게 되다' 등의 의미에 가까우므로 문맥적 의미가 ㉠와 거리가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파문이 일었다'의 '일다'는 '없던 현상이 생기다'를 뜻한다. ② '발자국이 나'의 '나다'는 '어떤 대상에 형체 변화가 생기다'를 뜻한다. ③ '구멍이 생겨'의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를 뜻한다. ④ '흙이 가서'의 '가다'는 '생기다'와 의미가 같다.

[31-34] 고전소설, 작자 미상, '박씨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패배감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창안된 군담 소설의 하나이다. 그러나 청나라에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역사적 사실을 뒤집어 당시의 치욕을 되갚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병조 판서 이시백의 아내인 박씨 부

인은 도통한 경지에 이른 인물로 청나라의 계략을 미리 알아차리고 청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시백과 박씨 부인의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 상공이 박 처사와 언약을 하고 금강산을 찾는 장면이다.

[주제] 박 처사의 딸과 이시백의 혼인(작품 전체 주제 :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31.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상공은 박 처사의 딸과 자신의 아들 시백의 혼사를 허락할 때,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 재상가에서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했느냐며 다그칠 때,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상공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박 처사는 상공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을 보고 혼인을 청한 것이다.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근본도 모르는 집안’이라 반대한 것이다. ④ 초등들은 상공이 묻는 말에 박 처사에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뿐이다. ⑤ 이시백은 아버지 상공의 뜻을 따라 혼인을 하기 위해 금강산을 따라 왔다. 이시백이 돌아가자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박 처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2. 추론적 사고(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해설 : 시백이 부친을 위로하며 고사를 인용한 것은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쓸쓸함’은 고사에서 한 무제가 겪은 감정이지 현재의 시백이나 상공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맥, 극히 불가하오나, 아니하오면, 하나이다’에서 극진한 겸양 표현을 엿볼 수 있다. ② 부인은 ‘혼인은 인물대사’라는 한문 구절은 인용하며 혼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좌우 산천 바라보니’의 시선은 바로 인물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풍경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시냇물, 두견성의 청각적 묘사를 통해 박 처사를 찾지 못해 애가 타는 상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3.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말한 수직적 사고는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했다.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계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이러한 수직적 사고 때문이 아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금강산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34. 어휘 · 어법(한자성어에의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상공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즉, 혼인을 치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없거나와 박 처사를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강산에 마냥 있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란 의미이다. ②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접는다는 의미이다. ③ 기회를 놓쳐 시기

가 지나갔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⑤ 인간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 힘들기에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픈 일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35-38] 현대소설 - 김승옥, ‘역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60년대 도시화된 삶의 형태에 대해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김승옥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서, 현대인의 딱딱한 기계적인 일상생활을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외화(外話, 겉 이야기) 속에 내화(內話, 속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소설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외화와 내화는 모두 1인칭 시점(외화 - 1인칭 관찰자 시점, 내화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 소설은 질서와 가풍을 중요시하는 양옥집과 가난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창신동 집이라는 두 공간을 대립시켜 현대 문명사회의 허구성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자기 세계에 대한 작가적 지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줄거리] 액자 소설인 이 소설은 어느 공원에서 우연히 듣게 된 어느 사내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다.(외화) 창신동 빈민가에 살던 나는 어느 날 깨끗한 양옥집으로 하숙집을 옮기게 된다. 이 집의 주인인 할아버지는 가풍을 중시하는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엄격한 질서와 가풍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인물이다. 나는 이곳의 엄격한 질서와 규칙에 낯설어 하면서 창신동에서의 가난하지만 생기 넘치는 삶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의식에 가장 또렷이 떠오르는 인물은 서씨인데, 그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로 한밤중에 동대문에 올라가 무거운 돌을 옮기는 역사(力士)였다. 자신만의 내밀한 삶과 세계를 추구하는 서씨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이 집의 기계적인 획일성에 대해 나름의 반발을 도모해 보지만, 하숙집의 생활은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내화)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 일상 생활에 대한 풍자

35.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인 나는 가난하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서씨의 삶과 엄격한 질서와 가풍을 중시하는 현재 하숙집 인물들의 삶을 대비하고 있다. 즉, 서술자인 나는 과거의 하숙집과 현재의 하숙집의 대비를 통해 각각의 공간에 속한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면서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② ‘그 집’에서의 회상 장면에서 ‘이 집’에서의 현재 장면으로 전환된 것 외에는 장면 전환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④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동대문’, ‘그 집’, ‘이 집’에서 모두 서술자는 ‘나’이므로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

36. 추론적 사고(구결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은 서씨가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서씨는 역사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로 조상들로부터 ‘힘’이라는 무형의 재산을 ‘가보’로 물려

받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 ‘힘’은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그저 공사관에서 남들보다 약간 더 많은 경제적 보수를 보장하는 정도에 불과해졌다. 그래서 서씨는 공사관에서 남들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는 데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남몰래 동대문에 올라 돌을 옮기고 그 돌을 보면서 선조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존재감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의 존재감을 긍정함으로써 서씨가 선조의 영광을 보존한다는 것이 ㉠에 담긴 의미이다. [답] ㉡

[오답피하기] ㉠ ㉠에는 서씨(저 사내)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나’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은 창신동 집에 있을 때 안주예의 동경을 느끼던 내가 새로운 하숙집에 와서 권태와 혐오증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여기에는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 ㉣에서 피아노 소리가 그친 시간을 확인해 보는 ‘나’의 행동에는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 확인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 ㉤ ㉤에서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했다’는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서 이 집안의 규칙이 ‘나’의 행동을 제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7.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의 추리)

정답해설 : ㉠, ㉢, ㉣, ㉤은 모두 ‘이 집’의 할아버지가 정한 엄격한 질서와 관련이 있는 시간들이며, 특히 ㉢과 ㉤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이다. 반면에 ㉤은 그런 질서와 관계 없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때를 가리킨다. [답] ㉡

38.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작가 김승옥이 추구한 새로운 사실성에 대해 언급하며 [A], [B]에 나타난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에 대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독자들은 [B]에서 서씨 가게의 내력을 통해서 서씨가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옮겨 놓는다는 이야기에 실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작가가 서씨의 내력을 밝힌 것은 [A], [B]에서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옮겨 놓는 서씨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답] ㉢

[오답피하기] ㉠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A]에 나오는 ‘금고만한 돌덩이’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이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눈에는 사실적인 소재로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동대문’을 낯선 배경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동대문’이라는 배경이 독자들의 실감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모습을 변형하는 수단이지만 그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A]에 나타난 서씨의 면모를 신성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서씨의 ‘돌덩이 옮겨 놓기’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서씨의 행위가 사실이 아닌 환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9-41]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
(가) 한용운, ‘님의 침묵’

작품해설 : 이 시는 임이 떠나 버린 슬픔을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듯한, 또는 혼자서 독백을 하는 듯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경어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더욱 호소력 있게 전달한다. 이 시는 임이 떠난 것을 자각하면서 시작된다. 1~4행에서 임과의 이별은 화자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5~6행에서 그 슬픔이 드러난다. 하지만 7~8행에서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된다. 그리고 마지막 9~10행에서는 슬픔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님의 침묵’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 화자는 임이 떠나가 버렸고 현재 침묵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속에는 임이 생생히 살아 있기 때문에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윤희 사상이라는 불교적 사유에 바탕을 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국 상실의 시대적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나) 김광규, ‘나뭇잎 하나’

작품해설 : 이 시는 겨울이 되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발견한 소멸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이 시에서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1~2연에서 언젠가는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제시한 후, 3연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4연에서 저마다 생성되었다가 끝내 소멸해 버리고 마는 나뭇잎을 보면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함께 자신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

39. 추론적 사고(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은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부분이다.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반면에 ㉡은 마지막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화자가 문득 인식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서 화자의 인식만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는 투영되어 있지 않다. [답] ㉢

[오답피하기] ㉠ ㉠, ㉡ 모두 시상이 확산된다고 보기 어렵다. ㉢ ㉢, ㉣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다. ㉣ ㉣은 역동적인 느낌이 희박하고, 오히려 ㉤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 ㉤은 사실의 기술이 아니고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은 사실과 관념이 뒤섞인 표현이다.

40.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보면 한용운의 「반비레」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고, 「나의 노래」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화자

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㉔에서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뒤흔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제 속에 실재하는 '님'을 만나 깊이 교감(소통)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답] ㉔

[오답피하기] ㉑ (가)의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화자는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㉓ <보기>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님에게 들리는' 것이 초점이므로, '산과 들을 지나서'라는 표현만 보고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㉔ (가)에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임이 떠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㉕ ㉔에서 님의 침묵을 뒤흔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노래가 아니라 화자의 노래이다.

41. 비판적 사고(감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존재의 고뇌를 노래한 시가 아니다. 따라서 4연에서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한 것은, 생성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게 된 화자의 상실감이라 할 수 있다. [답] ㉔

[오답피하기] ㉑ 1, 2연에서 '~가(이) 온통 ~ 때 그곳을 ~면서 나는 ~었다'는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에는 대상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㉒ '골짜기(1연)→'길'(2연)→'대추나무(3연)→'나뭇잎 하나(3연)'로 대상이 바뀌면서,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대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㉓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라는 부사는 화자의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는 부사로서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㉕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났다(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소멸) 나뭇잎의 변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42.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작자미상, '춘면곡(春眠曲)'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즉 상사(相思)의 정(情)을 노래한 평민가사이다. 한 서생(書生)이 봄날 야유원(野遊園)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 춘흥(春興)을 나눈 후 이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별로 인한 한(恨)과 원망의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 꿈에나만 임과 재회하여 즐거웠지만, 꿈에서 깨자 다시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이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다룬 다른 시가들과 달리 남자가 겪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주제] 임과 이별한 괴로움을 잊으려 애쓰는 한 남자의 심정, 임에 대한 상사(相思)의 정(情)

정답해설 : [A]에서 '조각달'이나 '잘새'는 '오동', '제비', '나비'와 마찬가지로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헤어진 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

절한 심정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므로,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답] ㉔

[43-45] 시나리오, 흥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조세희의 소설은 1970년대 한국 소설이 거둔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는 작품으로 전혀 낙원이 아니고 행복도 없는 '낙원구 행복동'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一家)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도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지문은 영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사건을 교차편집의 방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주제]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

43.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95에서 인부들이 담벽을 허물고 마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난쟁이 식구들은 태연히 앉아 말없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 인부의 대장 눈짓에 따라 인부들은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데 즐거운 낮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꺼워하다'는 '마음속으로 기쁘게 여기다'는 의미이다. [답] ㉑

[오답피하기] ㉒ 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영수는 말없이 앞만 본다고 했다. 영수가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㉓ 영수와 영호가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제시된 상황을 보면 가족 모두가 영희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불이가 '얼굴은 왜 다 찼니.'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영호는 얘기가 복잡하다며 덕분에 고기를 얻었다고 했다. ㉕ 우철은 영희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시를 서둘러 쓰는 모습을 보고 직접 고기를 잘라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철의 태도에 대해 영희는 약간 화가 나서 지켜 보고 있다고 했다.

44. 추론적 사고(영화의 장르적 특성 이해)

정답해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어 온다고 했다. 이는 담장 밖이 아니라 담장 안에서 바라본 시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카메라의 위치는 담벽 안쪽이며 이 시선은 인부들의 시선이 아니라 불이 가족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답] ㉔

[오답피하기] ㉓ 카메라의 시선은 바로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다.

45.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불이의 집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주 플롯'이 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우철과 영희의 이야기가 '부 플롯'이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편집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94의 장면은 봉타주 기법으로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플롯과 부 플롯이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답] ㉓

[오답피하기] ㉔, ㉕ <보기>에서 유사성과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두 장면의 유사성은 '고기'이며, 대조점은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이다.